

“시화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정 관 수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결과 1인당 국민 소득 만불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으나 국토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토 여기저기에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동안 관심밖의 환경문제는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화호 방류를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된 시화호는 서해안 시대의 거점확보를 위한 대단위 국토확장이란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환경정책 부재에서 빚어진 총체적인 실패작이라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처럼 시화호 수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시화호를 되살리기 위하여 각계 각층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까지 개발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화호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및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화호의 최적 관리 방안과 향후 개발기반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국수자원학회가 주관되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임정규)와 한국 물학술단체 연합회(회장 이원환)의 후원으로 '97년 9월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대강당)에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과 추진현황 등 5개의 주제 발표와 이어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5개주제에 대한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시화호의 수질개선대책과 추진현황 (이명섭/수공 건설1처장)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4. 1월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호수 약 1,700만평이 생성되었으나 방조제 축조전 유역내 환경기초시설 미비와 무처리 하·폐수 유입으로 수질악화가 가속됨에 따라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를 거쳐 '96. 7. 5 정부에서 발표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

■ 제2주제

시화호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방안 (서동일/충남대 교수)

시화호는 과도한 오염물질 유입, 호수의 정체화등으로 수질악화 및 당초 조성목적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태이며 또한 시화호 남측 주변농지 조성계획이 축소됨으로써 시화호가 공급해야 할 농업용수량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등의 여건변화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나 현재까지 시화호의 정확한 활용방안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기 처방보다는 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시화호 활용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절실한 상태임.

■ 제3주제

시화호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구획화 방안 검토

(이상일 동국대 교수)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더라도 맑은 물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배립을 통해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수질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그 방안으로 수중보설치를 통해 시화호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안과 축소배립을 통해 최소한의 규모를 갖춘 준하천형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제4주제

항만으로서의 시화호 이용방안검토

(이정욱/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시화호문제는 오염규모가 크고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한 상태에 있어 기본 정책의 수정이나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시화호내 항만개발은 시화호의 복잡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며 담수화계획 포기시이나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시화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빠른 시일내 기술적검토를 거친 법정 부차원의 기본방침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본방침에 시화호 항만개발이나 물류시설 입지안이 채택되면 시화항만개발을 위한 구체적방안마련이 가능함.

■ 제5주제

시화호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방향

(신응배 /한양대 교수)

시화호오염문제는 조성단계에서 개발논리에 뒤쳐진 환경영향검토와 환경기초시설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차후 추진되어야 할 대책 및 대안은 개발논리위의 친환경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지

속가능한 개발에 근거한 수질개선 및 보전방향, 관광, 조력, 항만등의 수체 이용계획까지 연계검토가 필요하며, 시화호가 갖고 있는 제반여건등을 감안할 때 호내 유입수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호소의 규모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또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간의 열띤 종합토론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시화호 수질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도출에 있어 생태적영향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병행하여 검토.

둘째, 수자원의 개발방향은 흔들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물수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질에 대한 목표설정후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하여 최적안도출.

셋째, 담수호 규모결정 및 구획화방안등 시화호 이용방안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과 연계검토가 필요.

넷째, 국토이용계획 수립은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 공단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통산부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화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국수자원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시화호의 최적규모 결정을 통한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활용방안등 다양한 수질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시화호 수질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시화호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향후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